

BOK 이슈노트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상황 평가

이영호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
Tel. 02-759-4205
leeyh@bok.or.kr

정강희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동향팀 조사역
Tel. 02-759-4291
ghjeong@bok.or.kr

송병호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동향팀 팀장
Tel. 02-759-4297
bh.song@bok.or.kr

2026년 1월 7일

- 1 **지난 수년간 국내 고용에서는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및 공공행정 취업자 **규모가 추세적으로 증가해왔다.** 대표적인 공공일자리인 노인 일자리 추정치는 2015년 월평균 27만명에서 2025년 1~3분기 기준 99만명으로 약 3.7배 증가하였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의사가 높아진 점이 그 배경에 있다. 실제로 공공일자리는 취약계층의 고용 및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고령층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 2 **그런데 취업자수에서 공공일자리의 비중이 커지면 전체 취업자수만으로 실제 고용상황 그리고 나아가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전체 취업자수(이하 총고용)가 거시경제 상황, 특히 경기요인에 의한 고용의 순환적 변동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총고용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취업자수 흐름을 통해 고용상황을 판단하기도 한다. 이에 공공일자리를 제외한 취업자수(이하 민간고용)를 추정하여 국내 고용상황을 평가하였다.
- 3 **분석결과, 민간고용은 총고용에 비해 거시경제 변동상황을 더 정확히 반영하며,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도 더 잘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민간고용은 내수경기, 근원물가와와의 상관관계가 총고용에 비해 높았고, 성장·물가 전망시에도 총고용을 활용하는 것보다 예측력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고용은 여타 노동시장 지표들과 좀 더 일관된 신호를 보낸다는 점에서도 더 유용하였다.
- 4 **추정결과, 민간고용 상황은 2024년 이후 부진한 흐름을 지속해 왔으며 2025년 3/4분기에는 소비 회복에 힘입어 부진이 완화되었다.** 민간고용은 2024년 이후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추세를 하회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까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다가 3분기에는 소비 회복으로 추세에 근접하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공공일자리 증가규모는 25년 1~3분기중 14만명으로 총고용의 양호한 증가세를 이끌었으며, 시나리오 분석결과 실업률을 0.1~0.2%p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고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장용성 금융통화위원, 이지호 조사국장, 김영주 물가고용부장께 감사드립니다. 본문에 남아있는 오류는 저자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한국은행

5] 2026년 민간고용은 2025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고용 증가폭은 생산연령인구 감소, 기술변화 등 구조적 둔화요인이 지속됨에도 내수개선에 힘입어 2025년_{+5만}보다 소폭 확대된 6만명을 나타낼 전망이다. 특히 민간고용 갭_{추세 대비 차이}은 2026년 -2만명으로 작년_{-8만명}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민간 고용 증감 전망〉

(만명)

	총고용 ¹⁾			공공 일자리 ²⁾			민간 고용		
	(추세)	(갭 ³⁾)		(추세)	(갭 ³⁾)		(추세)	(갭 ³⁾)	
2025 ^{예)}	18	23	-5	13	10	3	5	13	-8
2026 ^{예)}	15	18	-3	10	10	-1	6	8	-2
2027 ^{예)}	15	13	2	10	10	-1	6	3	3

주: 1) 2025.11월 전망 기준 2) 노인일자리 및 공공행정 취업자 추정치 3) 추세 대비 순환변동 부분

I. 서론

1. **지난 수년간 공공일자리 규모가 추세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돌봄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데다 고령층의 사회참여도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정부 직접일자리 목표치는 2015년 68.6만개에서 2025년 123.9만개로 약 1.8배 증가하였다. 노인일자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의 소득보전과 고용안정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인일자리가 고용 변동성 완화와 가계 소득 안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2. **그런데 취업자수에서 공공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전체 취업자수(이하 총고용)만으로는 고용상황의 경기적 측면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취업자수는 양적으로 추세 수준의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나, 건설업, 제조업 같은 주요 업종 고용은 부진하고, 저임금·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 지표간에도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3. **이 경우 대안적 지표를 마련하여 지표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고용상황 판단의 정확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의 경우에도 전체 취업자수를 민간과 정부 부문으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민간고용을 통해 고용상황을 판단하기도 한다¹⁾. 이에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공공 일자리를 제외한 취업자수(이하 민간고용)를 추정하고, 최근 고용상황을 평가해 보았다(II장). 또 민간고용이 고용상황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지표인지 점검하였다(III장).

II.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상황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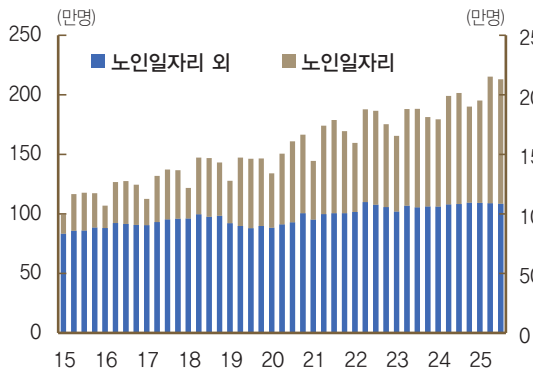
4. **민간고용은 공공일자리 규모를 먼저 추정한 후 이를 총고용에서 차감하여 시산하였다.** 공공일자리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어 범위 설정이 필요하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공공일자리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규모를 추정해야 한다.
5. **공공일자리는 자료제약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공공행정업 취업자(노인일자리 외)로 한정하였고, 노인일자리 참여자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이하 경활 원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1) 월러(Christopher J. Waller) 미 연준 이사는 민간고용이 총고용보다 경기 순환적 움직임을 더 잘 반영하기 때문에 민간고용 지표를 중요하게 살펴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25.7월). Chung *et al.* (2014) 등에서도 노동시장 여건지수 산출시 구성지표로 총고용이 아닌 민간고용을 활용하고 있다.

노인일자리는 구체적으로 보건복지·공공행정업, 임시직, 60세 이상 취업자로 식별하였다. 경찰 원자료를 이용한 노인일자리 추정값과 행정자료 실적치를 비교해 본 결과, 노인일자리 추정치가 강건한 것으로 판단된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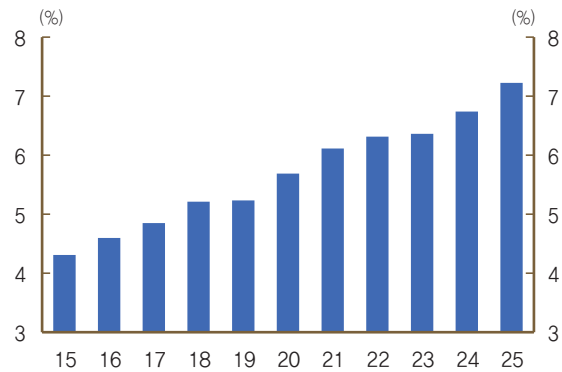
6. 추정결과, 공공일자리 규모는 노인일자리를 중심으로 추세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그림 1]. 공공일자리는 2015년중 월평균 113만명에서 2025년중_{1~3분기} 208만명으로 약 1.8배 확대되었다. 특히 노인일자리는 2015년중 27만명에서 2025년중_{1~3분기} 99만명으로 약 3.7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일자리는 2015년 전체 취업자수 대비 4.3% 수준에서 2025년_{1~3분기} 7.2%로 약 67.7% 증가하였다^[그림 2].

[그림 1] 부문별 공공일자리 추이¹⁾



주: 1) 25년은 1~3분기 기준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추정

[그림 2] 취업자수 대비 공공일자리 비중¹⁾



주: 1) 25년은 1~3분기 기준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추정

7. 공공일자리 증감을 살펴보면, 팬데믹 이후 증가규모가 줄어들었다가 2024년 이후 크게 확대되어 최근 고용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그림 3, 4]. 정부 직접일자리는 저소득층,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 및 소득 안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최근 내수 부진에 대응하여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8. 시나리오 분석 결과, 공공일자리는 실업률을 0.1~0.2%p가량 낮춘 효과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일자리가 없을 때 참여자가 어떤 경제활동상태에 속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다. 이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등 가계 서베이 결과를 기초³⁾로

2) 15~24년중 노인일자리 추정치와 행정자료(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실적치 오차를 살펴보면, 1분기 0명, 2분기 2만명, 3분기 0명, 4분기 -9만명으로 나타났다. 즉, 1~3분기의 오차는 거의 없었으며, 4분기 오차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시점과 노인일자리 사업 종료 시점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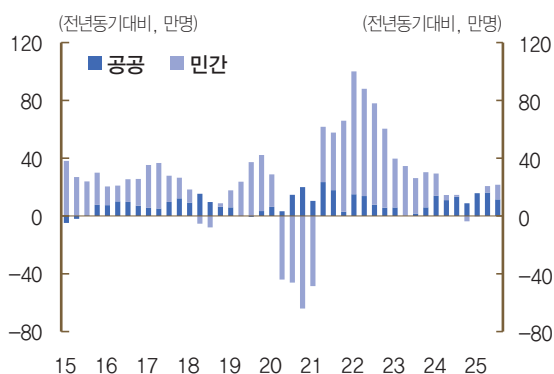
3) 고령화연구패널조사(6~8차)의 공공일자리 참여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년도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인구조사(20~24년)의 65세 이상 평균 경제활동상태, 한국노동패널조사(1~24차)의 실직자의 당해 연도 경제활동상태를 추정한 후 평균하였다.

반사실적^{counter-factual} 가정에 기반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나리오1은 공공일자리 참여자가 동 일자리가 없을 때 취업 48%, 실업 26%, 비경제활동인구 26% 상태가 된다고 가정하였고, 시나리오2는 취업 48%, 실업 52%로 가정하였다. 시나리오2는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경제활동참여 의향이 높기 때문에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모두 구직활동을 한다는 다소 극단적인 가정이며, 시나리오1은 미취업자의 50%는 구직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비경제활동상태에 머문다고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시나리오1과 2에서의 조정실업률은 2024년 이후 실제^{actual} 실업률보다 각각 평균 0.1%, 0.2%p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9. 민간고용은 2022년 이후 증가규모가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다⁴⁾[그림 3, 5]. 민간고용 추세는 2022년 23.7만명에서 2025년 3분기중 12.2만명으로 증가규모가 최근 들어 빠르게 둔화되었다. 이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고용 창출력이 비IT부문의 글로벌 경쟁심화, 기술 변화 등으로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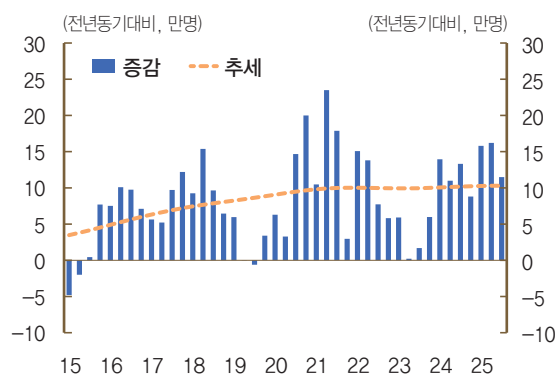
10. 민간고용을 추세와 비교해 보면, 민간고용 상황은 2024년 이후 부진한 흐름을 지속해 왔으며 2025년 3/4분기에는 소비 회복에 힘입어 부진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5, 6]^[표 1]. 민간고용은 2024년 이후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추세를 하회하였으며, 특히 4분기중에는 부진 정도가 크게 심화되었다^[그림 6]. 민간고용은 2025년 상반기까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다가 3분기에는 소비 회복으로 추세에 근접하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림 3] 공공일자리-민간고용 분해



자료: 국가데이터처, 저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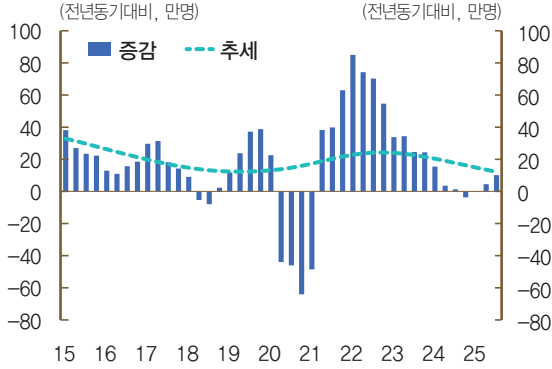
[그림 4] 공공일자리 증감과 추세



자료: 국가데이터처, 저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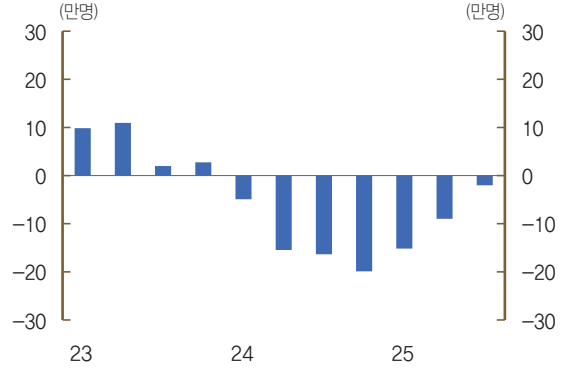
4)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을 구분하기 위하여 공공 일자리와 민간고용 각각을 추세_{hp-filter}와 순환으로 분해하였으며, 끝단치_{end-point} 문제를 고려하여 2001년부터 2027년까지의 전망치를 포함하여 추정하였다.

[그림 5] 민간고용 증감과 추세



자료: 국가데이터처, 저자 추정

[그림 6] 민간고용 갭¹⁾



주: 1) 민간고용 갭은 추세 대비 차이를 의미

자료: 국가데이터처, 저자 추정

11. 올해 민간고용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될 전망이다^[표 1]. 전체 민간고용은 5만명에서 6만명으로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추세 대비 수준, 즉 민간고용 갭은 지난해 -8만명 수준에서 올해 -2만명으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에는 추세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공공부문도 추세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고용⁵⁾은 노동공급 증가세 감소, 공공부문 축소 등으로 지난해보다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공공-민간 고용 증감 전망

(만명)

	총고용 ¹⁾	공공 일자리 ²⁾		민간 고용	
		(추세)	(갭 ³⁾)	(추세)	(갭 ³⁾)
2025 ^{e)}	18	23	-5	5	-8
2026 ^{e)}	15	18	-3	6	-2
2027 ^{e)}	15	13	2	6	3

주: 1) 2025.11월 전망 기준

2) 노인일자리 및 공공행정 취업자 추정치

3) 추세 대비 순환변동 부분

5) 이영호 외(2025)에서는 인구와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코호트(cohort) 모형을 활용하여 추세 취업자수를 추정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공공과 민간 각각의 추세를 합하여 전체 취업자수의 추세를 추정하였다. 추정 방식의 차이로 두 추정치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Ⅲ. 민간고용 지표의 유용성 점검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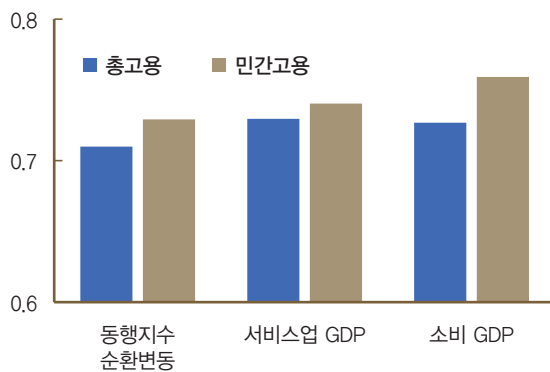
3.1. 민간고용과 거시변수 관계

3.1.1 상관관계 비교

12. 민간고용은 총고용에 비해 내수 경기상황을 밀접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민간고용_{순환}과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서비스업 GDP_{순환}, 소비 GDP_{순환}의 상관관계_{15.1분기~25.3분기}는 총고용_{순환}보다 개선되었다. 특히 소비와의 상관관계는 0.76으로 총고용_{0.73}보다 개선이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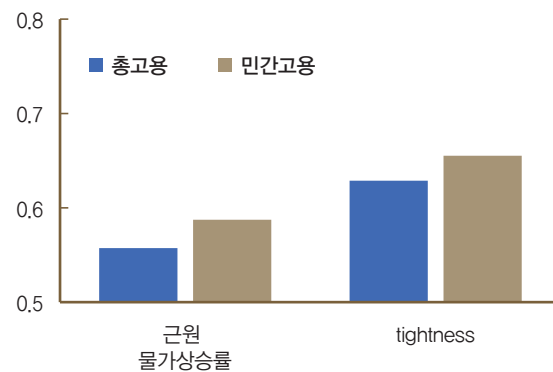
13. 물가의 경우도 민간고용이 총고용보다 상관관계가 높았다^[그림 8]. 민간고용_{순환}과 근원물가_{순환}의 상관관계수가 0.59로 총고용_{0.56}보다 높는데, 이는 민간고용이 노동시장 긴장도_{tightness}와 더 밀접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긴장도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임금은 가계의 소득 변화를 야기하여 물가의 수요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림 7] 경기지표와의 상관계수¹⁾²⁾



주: 1) 15.1분기~25.3분기 기준
2) 모든 지표는 추세 제거한 순환 지표
자료: 국가데이터처, 저자 추정

[그림 8] 물가와의 상관관계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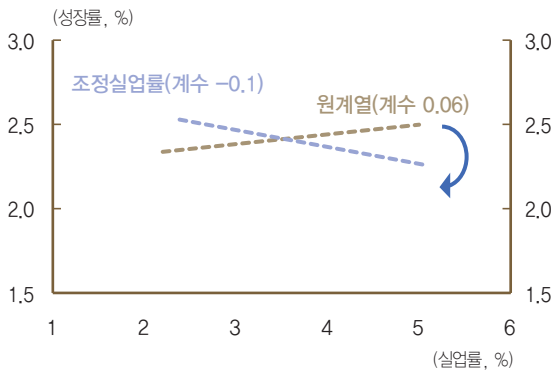


주: 1) 15.1분기~25.3분기 기준
2) 모든 지표는 추세 제거한 순환 지표
자료: 국가데이터처, 저자 추정

6) 3장에서는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하여 민간고용 추정치 규모(scale)를 행정자료로 보정한 값을 사용하였다. 엄밀한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외의 정부 직접일자리도 간접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간 정부 직접일자리 실적치 등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경찰 추정치를 보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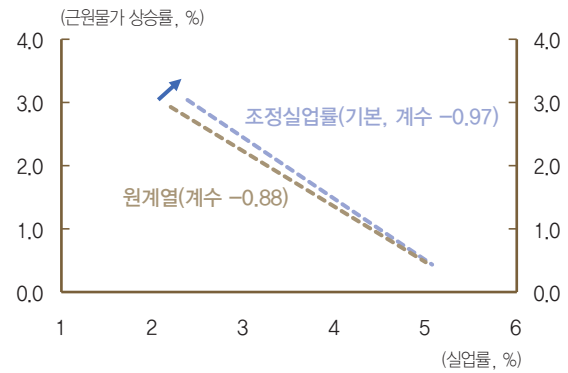
14. 성장-실업률^{Okun's law}, 물가-실업률^{Phillips curve} 관계도 민간고용에 상응하도록 조정한 실업률이 실제 실업률보다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9, 10]. 2015년 이후 실업률과 성장률^{실질 GDP}의 상관관계는 예상과 달리 OLS 추정 계수가 약한 양의 값을 나타냈다. 반면 앞서 반사실적 가정에 기반하여 조정한 실업률과 성장의 상관관계는 예상대로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조정 실업률과 근원물가 상승률과의 관계는 실제 실업률보다 더 뚜렷한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실업률이 가계의 노동시장 이탈, 기업의 노동력 비축 등으로 인하여 지표간 경기와의 관계가 낮아졌으나, 조정 실업률을 활용하면 지표간 정합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9] 성장-실업률 관계¹⁾²⁾



주: 1) 15.1분기~25.3분기 기준
 2) 계수는 OLS 추정 계수
 자료: 국가데이터처, 저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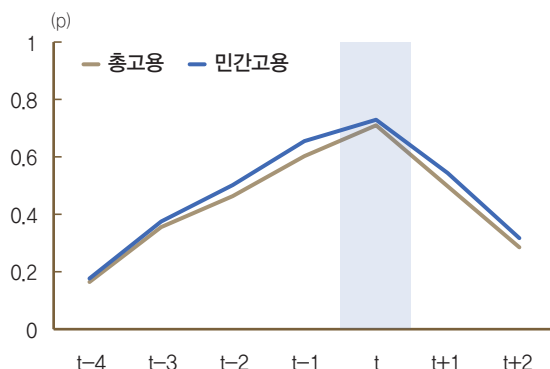
[그림 10] 물가-실업률 관계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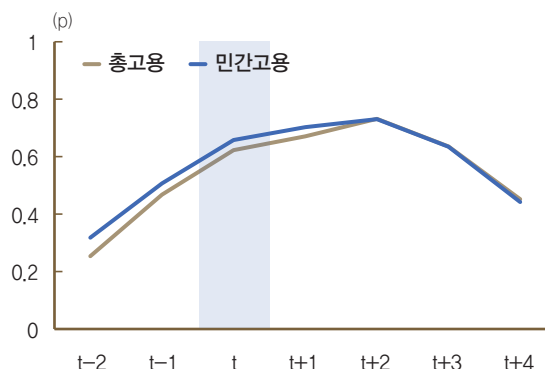
주: 1) 15.1분기~25.3분기 기준
 2) 계수는 OLS 추정 계수
 자료: 국가데이터처, 저자 추정

3.1.2 예측력 비교

15. 두 고용 지표의 성장-물가에 대한 예측력을 비교하기 위해 우선 시차를 살펴보면, 민간고용과 내수 경기, 근원물가와의 시차 상관관계는 총고용과 큰 차이가 없었다^[그림 11, 12]. 2015년 이후 자료를 통해 시차 상관계수^{cross-correlation}를 추정한 결과, 민간고용^{순환}과 총고용^{순환} 모두 내수경기와 동조성이 강했고, 근원물가는 고용보다 2분기 후행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11] 내수경기와의 시차 상관계수¹⁾²⁾

주: 1) 15.1분기~25.3분기 기준
2) 모든 지표는 추세 제거한 순환 지표
자료: 국가데이터처, 저자 추정

[그림 12] 근원물가와의 시차 상관계수¹⁾²⁾

주: 1) 15.1분기~25.3분기 기준
2) 모든 지표는 추세 제거한 순환 지표
자료: 국가데이터처, 저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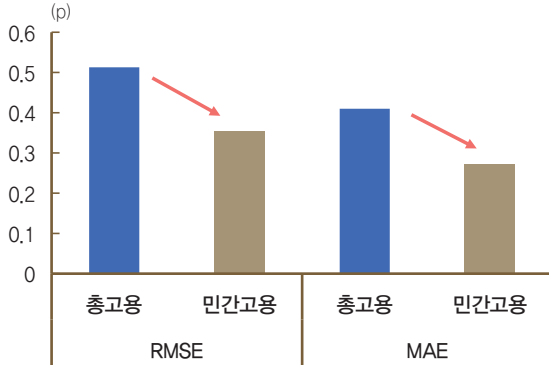
16. 그림에도 민간고용은 총고용보다 내수경기에 대한 예측오차가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나 예측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13]. 시차분포모형^{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을 통해 내수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에 대한 예측력을 살펴보았다. 팬데믹 영향을 고려하여 2015년 1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 표본으로 2023년 1분기 이후를 예측한 후 실제값과 예측치의 평균제곱오차^{RMSE, Root Mean Squared Error} 및 평균절대오차^{MAE, Mean Absolute Error}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RMSE와 MAE가 민간고용이 전체 취업자수보다 작아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30.9%, 33.5% 개선되었다. DM^{Diebold-Mariano} 검정 결과 두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약 10% 유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text{시차분포모형 } y_t = \alpha_0 + \sum_{i=0}^4 \beta_i x_{t-i} + \sum_{j=1}^4 \gamma_j y_{t-j} + \varepsilon_t$$

$$\text{평균제곱오차(RMSE)} \sqrt{\frac{1}{n} \sum (y_t - \hat{y}_t)^2}, \quad \text{평균절대오차(MAE)} \frac{1}{n} \sum |y_t - \hat{y}_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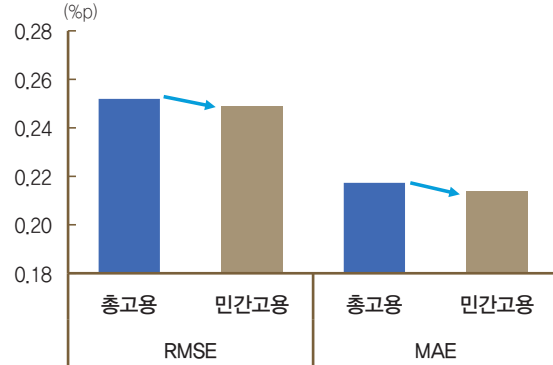
17. 근원물가에 관한 예측력도 역시 민간고용이 더 높았다^[그림 14]. RMSE와 MAE가 민간고용이 총고용보다 낮았으며, 각 1.1%, 1.6% 개선되었다. 마찬가지로 DM 검정 결과 두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약 10% 유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내수경기에 대한 예측 오차¹⁾²⁾



주: 1) 시차상관모형 추정결과(15.1분기~25.3분기)
 2) 모든 지표는 추세 제거한 순환 지표
 자료: 국가데이터처, 저자 추정

[그림 14] 근원물가에 대한 예측 오차¹⁾²⁾



주: 1) 시차상관모형 추정결과(15.1분기~25.3분기)
 2) 모든 지표는 추세 제거한 순환 지표
 자료: 국가데이터처, 저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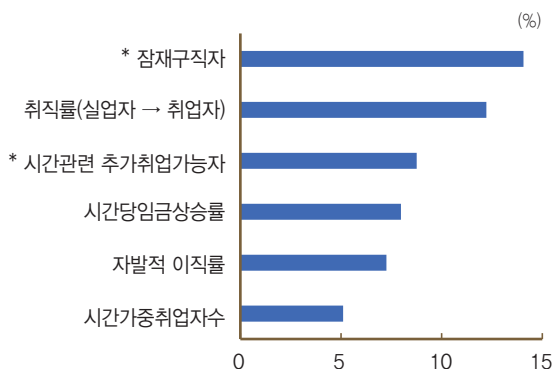
3.2. 민간고용과 여타 노동시장 지표 관계

18. 고용 지표와 여타 노동시장 지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민간고용은 총고용에 비해 노동시장 지표와의 상관관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표별 민간고용 상관관계가 개선된 정도를 살펴보면, 유희인력⁷⁾·잠재구직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등⁸⁾이나 노동이동⁹⁾·취직률, 자발적 이직률 등과 같이 경기에 민감한 지표와의 상관관계 개선이 뚜렷하였다. 이는 민간고용이 경기민감도가 높은 부분의 변화를 더 잘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9. 또한 민간고용은 총고용에 비해 전반적인 노동시장 여건에 더 잘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분석을 위해 먼저 부문별 주요 지표⁷⁾를 활용하여 노동시장의 공통된 흐름을 의미하는 노동시장 여건 지수(Labor Market Conditions Index)를 산출하였다⁸⁾. 이때 각 지표의 적재량^(loading)은 개별지표의 가중치로서 공통된 흐름¹⁰⁾·첫 번째 주성분 기준과의 방향성과 정도를 나타내며, 공통된 흐름과 같은 방향일 때는 양의 부호를 갖고, 비슷한 흐름을 가질수록 절댓값이 크다. 추정결과 민간고용의 적재량은 총고용보다 높아 민간고용이 노동시장 여건과 보다 일관된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일자리의 적재량은 -0.26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공공일자리가 노동시장 여건과 상반된 흐름을 가지고 변동함을 시사한다.

7) LMC는 고용의 양(전체 취업자수, 민간고용, 공공부문 고용), 고용의 질(시간가중 취업자수, 단순노무·서비스·판매직 비중), 취약부문(청년 실업률), 노동시장 슬랙(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경활률), 노동이동(자발적 이직률) 등의 지표로 추정하였다. 모든 지표는 추세를 제거한 후 계절조정하였다.

8) 본고에서는 거미줄 차트(25.5월 한국은행 전망보고서)에 포함된 구성지표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동진·박재현(2015)에서 산출한 LMC의 구성지표와 다소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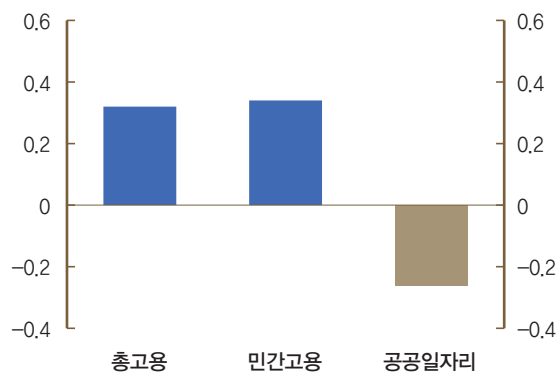
[그림 15] 민간고용 상관계수 개선 정도¹⁾²⁾³⁾

주: 1) 15.1분기~25.3분기 기준

2) *는 (-)를 곱하여 변환

3) 모든 지표는 추세 제거한 순환 지표

자료: 국가데이터처, 고용노동부, 저자 추정

[그림 16] 지표별 적재량¹⁾²⁾

주: 1) 적재량은 공통된 흐름(LMC)과의 방향성과 상관 정도를 나타냄

2) 15.1분기~25.3분기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고용노동부, 저자 추정

IV. 요약 및 시사점

20. 종합하면, 민간고용은 고용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일자리는 취약계층 소득 보전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관점에서는 고용상황 판단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민간고용은 거시경제의 단기적·경기적 변동을 총고용보다 잘 포착하며 여타 노동시장 지표들과 좀 더 정합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국내 고용에서 공공일자리 비중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용상황 판단 시 총고용만 고려하기보다 민간고용을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하겠다.

21. 민간고용을 통해 평가해 보면, 국내 고용상황은 총고용이 추세 수준의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냈음에도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민간고용 증가규모는 경기 중립적인 수준_{+13만}을 큰 폭 하락_{-8만명}하는 5만명에 그쳤다. 반면 공공일자리 증가규모는 13만명으로 총고용의 양호한 증가세를 이끌었으며, 실업률을 0.1~0.2%p가량 낮추는 효과를 준 것으로 추정된다.

22. 향후 고용상황은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금년중 민간고용 증가규모는 지난해_{+5만}보다 소폭 확대된 6만명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추세에 대비한 민간고용 갭은 -2만명으로 지난해_{-8만}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며, 내년에는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일자리는 금년중 증가규모가 10만명 수준으로 전년보다 축소되고 내년까지 비슷한 증가규모를 유지할 전망이다.

〈참고문헌〉

이동진 · 박재현, 노동시장 상황지수(LMCI) 시산 및 활용방안 검토,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2015

이영호 · 정강희 · 송병호,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BOK 이슈노트, 제2025-17호, 2025

한국은행, 한눈에 보는 고용상황 : 거미줄차트(spider chart), 「경제전망보고서(25.5월)」, p.29-31, 한국은행, 2025

Chung, H., Fallick, B. and Ratner, D., “ Assessing the Change in Labor Market Conditions,” Fed Not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May 22, 2014

Waller, Christopher J., “The Economic Outlook.” Speech presented at the Federal Reserve Board, Washington, DC, July 17, 2025.

Copyright ©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BOK 이슈노트 No. 2026-1에서 인용”하였다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분은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기획팀(02-759-475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